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의 위험성

박광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으로 살 켜 왔으며 결국 전쟁으로 망하였습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아세아인민들과 전 세계인류앞에 저지른 죄악의 력사는 지금도 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죄악의 력사는 오늘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결코 변하지 않을것입니다.》

(《김일성전집》 제45권 220페이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진보적인류의 념원과과는 대치되게 일본반동들은 지나온 력사에서 교훈을 망각하고 해외팽창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은 매우 엄중한 위험계선에로 치닫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해외팽창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아시아침략전쟁, 세계정복전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먼저 지난날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책동이라는데 있다.

《명치유신》후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다른 서유럽자본주의나라들과 함께 20세기초에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가게 되였으며 세계5대렬강의 하나로 자처해나섰다.

일본은 형성초기부터 국내와 식민지인민들에 대한 무제한한 탄압과 착취,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을 감행하였다.

특히 1940년대초에 일본반동통치배들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세계제패야망이 담긴 침략교리를 들고나왔다.

이것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아시아나라인민들 모두가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일제의 간악한 침략교리였다.

《대동아공영권》에는 아시아나라들을 타고앉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지배하려는 일제의 검은 속심이 깔려있었다.

일본반동통치배들은 《명치유신》이후 자본주의발전에 들어선 첫시기부터 아시아대륙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어 날뛰였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침략전쟁을 련이어 벌려 조선과 남부싸할린, 중국의 넓은 지역을 강점한 일제는 《대동아공영권》창설구상이라는것을 떠들기 시작하였다.

1938년 11월 일본의 고노에정부는 새로운 《동아시아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 《신질서》의 대상은 《일, 만, 중》(조선을 포함한 일본과 만주와 중국본토)이라고 떠벌이였으며 1939년말에는 《동아신질서건설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일제는 아시아침략야망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대동아공영권》창설계획을 내놓으면서 저들이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유미렬강을 밀어내고 아시아인민들을 《보호》하여 아시아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며 일본을 맹주로 하는 《공존공영》권을 만듦으로써 모두 함께 《번영》을 이룩해나간다는 달콤하면서도 허황한 소리를 켜쳤다.

이것은 당시 일제가 전쟁을 련이어 일으켜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던 범죄적목적을 가리우고 저들이 벌리는 전쟁과 침략을 합리화함으로써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을 강점하고 전체 아시아나라들을 포괄하는 《대식민지제국》을 창설하려는 간교한 침략계획이었다.

1940년 7월에 고노에가 다시 수상자리

에 올라앉자 이 내각의 외상이었던 마쓰오카 요스께는 《대동아공영권》건설이 일본의 외교정책의 기본방침이라고 지껄이였다.

그후 일본반동정부는 《대동아공영권》건설안을 완성하였으며 침략지역을 단계별로 확대할것을 꾀하였다.

그에 의하면 첫 단계는 일본을 중심으로 조선, 만주, 북부중국과 장강하류지역 및 이 전쪼련의 연해주지방을 포괄하는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중핵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며 둘째 단계는 《중핵지대》에 전체 중국령토, 인도지나반도, 동부씨비리를 포괄하는 《소공영권》을 형성하는것이며 셋째 단계는 《소공영권》에 오세안주와 인디아를 포함하는 《대공영권》을 형성하는것이였다.

《대동아공영권》은 수억의 아시아와 오세안주인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가장 침략적이며 흉악한 구상이였다.

이처럼 일제는 《대동아공영권》건설을 적극 다그치면서 그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을 받으며 또한 세계인민들을 속일 목적으로 1943년 11월에는 저들이 강점한 나라들의 괴뢰들을 도끼에 불려다놓고 《대동아회의》이라는 놀음까지 벌렸다. 여기에서는 《대동아공동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하는 꼭두각시놀음까지 벌여졌다.

교활한 일제는 이 놀음판에서 《아시아》를 한집안으로 만들고 천황이 그 집주인으로 된다는 《팔괘일우》(온 세상이 한집안)라는 허울좋은 구호를 내놓았다.

이것은 횡포하기 그지없고 침략야망에 미친 일본반동통치배들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악독한 구상이였다.

《대동아공영권》의 구호밑에 감행된 일제의 침략과 약탈로 말미암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재난과 불행,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저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에서 패함으로써 《대동아공영권》의 요란

스러운 구상도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일제가 패망한 후 미제는 일본을 저들에게 예속시켜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을 침략하는 전초기지로 만들며 일본군국주의를 되살려 극동침략의 도구로 리용하려고 하였다.

바로 이렇게 되살아난 일본은 지난 세기의 교훈을 잊고 새 세기에도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를 실현하자면 해외침략의 발판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고안해낸것이 령토문제를 구실로 이전 20세기 전반기 저들의 침략으로 강탈하였던 령토들을 자기의 세력권으로 만드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와의 독도문제, 중국과의 조어도문제, 로씨야와의 꾸릴렐도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이 령토들이 이전의 자기의 령토라고 주장함으로써 침략의 역사를 되풀이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속심은 주변나라들과의 령토문제를 야기시켜 마치도 저들의 령토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산생된것처럼 세계여론을 오도함으로써 해외침략의 발판을 닦고 지난 시기 이루지 못한 옛 꿈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이다.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침략책동이라는데 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평화》와 《친선》, 《협력》이라는 소리들이 거의 매일과 같이 울려나오고있다. 말하자면 일본이 하는 모든 행동은 《평화》, 《친선》, 《협력》을 위한것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국가도 친선국가도 아니다.

일본의 역사는 침략과 전쟁의 피비린내나는 범죄의 역사이다.

일본은 미국이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왔으며 《명치유신》 후 극도의 침략성과 호전성을 가진 나라로서 침략전쟁을 일삼아온 나라이다.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다음 아시아정복, 세계정복의 길에 나섰으며 1937년에 중일전쟁을 도발하였으며 1941년 12월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켜 다른 나라 인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 나라들의 자연부원과 재부를 약탈하면서 비대해졌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시기에만도 야수적인 살육만행을 감행함으로써 중국에서 3 500만명, 월남에서 200만명, 인도네시아에서 200만명, 필리핀에서 110만명, 말레이시아에서 120만명이상에 달하는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일제가 아시아지역에서 약탈한 재부는 수천억US\$에 달한다.

침략과 전쟁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번영》하려는 일본의 강도적야망은 20세기나 21세기나 변함이 없다.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도 바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합법화하자는것이다.

해외팽창은 독점자본일반의 생존방식이며 오늘 일본독점자본에 있어서 그것은 더욱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으로 심히 약화되었던 일본독점자본은 랭전시기 미제의 보호와 후원밑에 급속히 되살아나 팽창될대로 팽창되었으며 이미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경제적으로 깊숙이 침투되었다.

오늘 일본독점자본은 국내에서 생산의 장성에 비한 시장의 협소, 자원의 부족과 수요의 증대 등 여러가지 사회경제적모순과 난관에 부딪치고있다. 국내시장은 최대한의 리운을 추구하기 위하여 독점자본이 무정부적으로 확대하는 생산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연료, 원료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있는 조건에서 일본독점자본

은 극도로 연료, 원료문제해결에서 커다란 난관을 겪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일본독점자본은 이러한 모순과 난관으로부터 그 어느때보다도 해외팽창을 사활적으로 요구하고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도 일본독점자본으로 하여금 해외팽창을 다그치게 하고있다.

일본경제는 10여년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있으며 장기적인 불경기에서 허덕이고있다. 현재 일본경제는 생산의 감퇴와 침체, 기업의 파산, 실업의 증대 등 파산의 위기를 겪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러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해외침략에서 찾고있다.

이를 위해 일본반동들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전시기의 령토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오는 한편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의 미명밑에 위협적인 《해외파병법》을 조작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합법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하였다.

특히 새 세기에 들어와서 력사적으로 고질화되고 악습화된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은 더욱 로골화되었다.

미국에서 9. 11사건이 터지자 일본반동들은 때를 만난듯이 《대미지원》의 구실밑에 미제와 적극 협력하면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인디아양지역으로까지 대폭 확대하고 이 지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여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작전을 맹렬히 벌리였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본질상 전쟁참가였으며 해외침략의 서막이였다.

《평화》를 부르짖으며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는것은 일본반동들이 쓰는 상투적수법이다.

일본반동들은 《국제협력》, 《재해방지》, 《세계평화유지》, 《반테로전》 등의 구실을 내들고 기회를 엿보다가 불의적인 무력공격을 단행하려 하고있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 침략책동은 날로 현실화되어가고있다.

오늘 아시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앞에는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책동의 진의도와 그 위험성을 똑똑히 알고 침략전쟁책

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생전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투철한 반일계급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그 누구도 감히 범접못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워야 할것이다.